

# ‘KREI리포터’ 강원지회 간담회 결과

## 1. 개요

- 목 적: 강원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 일 시: 2018년 1월 17일~18일
- 장 소: 강원 화천군 일대
- 참 석: 총 16명
  - 강원지회 리포터(14명): 박수정, 박정숙, 박현근, 변해동, 송인숙, 송주희, 신금영, 심호섭, 유영조, 이윤희, 이진수, 최락철, 최무열, 전병열
  - 연구원 관계자(2명): 박혜진 선임주무원, 김미리 주무원
- 주요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비 고
17일(수)	12:00~14:00	점심식사	
	14:00~16:00	견학	화천 산천어축제
	16:00~17:00	다과	
	17:00~19:00	저녁식사	
	19:00~24:00	간담회	현장여론 수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18:00~19:00	저녁식사	
18일(목)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해산	

## 2. 주요 논의 내용

- 농촌관광 우수사례 견학
  - 화천 산천어 축제는 1월 한 달 동안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및 3개 읍면 일원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농촌의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명성 있는 축제이다. 2003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1백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규모이며, 산천어 얼음낚시, 눈썰매, 봅슬레이 등 다양한

불거리와 체험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 회원이 방문한 평일에도 산천어 축제에 많은 방문객이 오가고 있었다. 따뜻한 날씨 탓에 얼음이 녹은 곳도 종종 있었지만 추울 때 여러 번의 물 가둠으로 얼음을 단단히 얼려 놓아 철저한 관리로 산천어 낚시 등 체험을 즐기기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축제 입장료는 1만 2천 원인데 이중에 5천 원은 농산물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 근처에 마련된 농산물 판매장에 가면 화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체험시설을 비롯해서 주차장 및 화장실, 각종 편의시설이 도시민을 비롯한 각지에서 온 방문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체계적인 축제 관리와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 연령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마련 등 타 지역축제의 많은 실패를 다시금 검토해 화천 산천어 축제만큼의 성공사례를 더욱 홍보해야 할 것이다.

#### ○ 강원지역 농업·농촌 현장여론

- 박수정: 된장을 하는데 각 농가마다 모두 최고라고 한다. 발효식품에 기준이 없다. 국가기관에서 기준을 정해서 가공하는 농가에 기준을 배포해서 기본을 제시했으면 한다.
- 이진수: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인제 오지이다. 아직까지 농사를 짓는데 도로가 잘되어 있지 않아 어렵다. 인구가 적더라도 도로망 구축을 정부에서 해주면 한다.
- 신금영: 토마토를 하는데 올겨울 추워서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서 토마토를 판매해도 기름 값이 안 된다. 거기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마저 올라서 많이 어렵다. 농사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올해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 받은 것을 포기하면 내년에 배정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다. 4대 보험도 들어주어야 하고 소득은 줄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은 이상기후 대책으로 유류비 지원이 있으면 한다.

- 박정숙: 1차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가격이 없다. 그래서 배를 생산해서 배즙을 만드는데 규제가 심하다. 위생적으로 생산을 해야 하니 일 년에 4번 검사를 받는다. 받을 때 마다 검사비가 20만원이 든다. 큰 돈이 드는데 농가에 직접 생산가공하는 품목의 위생 검사비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 최락철: 종자원 품목등록 시 등록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검사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사비등에 지원이 필요하다.
- 최무열: 이런 검사비등의 문제를 기술센터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니면 OEM방식으로 농가의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송주희: 이제 결혼한 지 일 년이 되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남편은 다른 일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들기름 가공을 혼자서 하고 있다. 직접 키우고 동네의 수매를 받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혼자서 가공업을 하고 농사도 짓고 있다. 출산도우미가 20일 정도 하고 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양쪽 부모님도 돌봐주실 형편이 안 되어 아이를 낳는 일을 미루고 있다.

##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현장여론

- 이진수: 요즘 농업의 큰 기능 중에 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이다. 인제는 군인이 많다 보니 전역후의 다양한 귀농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 유영조: 농촌에는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계승이 되는 곳이 농촌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이어나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 최락철: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팜스테이가 농산물의 신뢰도도 높여주지만 관광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다.
- 변해동: 퇴직한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 기능이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생각한다. 또한 자연의 보존 기능으로 홍수 방지 기능 등이 있다.

- 최무열: 농촌은 힐링의 기능이 있다. 농촌에서 쉬고 효과의 시너지 효과로 정신적인 치유 등 다양하게 인간의 삶에 득이 되고 있다.
- 이윤희: 농촌은 직업교육의 장이다. 또한 관광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다.

#### ○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과 대응정책에 대한 현장여론

- 박현근: 농번기 때 면 별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면 좋겠다. 일이 많을 때 모두 밭에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밥을 해먹는 것이 어렵다
- 이윤희: 여성 바우처 카드의 한도를 올려 주었으면 한다. 십만 원인데 금액이 너무 적다.
- 변해 : 농협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주고 있다. 송주희 회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농민도 농업수준의 육아휴직을 주는 대책을 세워야겠다.
- 심호섭: 여성의 애로사항의 일부분은 육아이다. 농촌의 모든 아이들을 무료로 대학을 보내 준다고 하면 농촌의 인구가 증가가 될 것이다. 정말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시골이 된지 오래 되었다. 더불어 노령연금을 주어서 농민들이 고생한 보람을 느꼈으면 한다. 또한 농촌여성의 금리를 낮추어 주면 한다.
- 유영조: 농촌에서 이제는 초등학교조차 폐교가 되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우리지역에 특성화된 초등학교가 있다. 특성화초등학교를 운영을 하는 것도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지역에 폐교가 되는 학교를 아이들을 열심히 악기를 하나씩 가르쳐서 지금은 학생이 늘어나는 곳이 있다.
- 이윤희: 농촌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만이 가능할 것 같다. 육아수당을 늘려 주는 것도 방안이다.
- 박수정: 농기계 구입 시 여성농업인 할인제도가 있으면 한다.

## ○ PLS(농약안전사용기준)에 대한 현장여론

- 심호섭: 2019년부터 전면시행이라고 하는데 품목에 정해진 약제가 현장하고 유동성이 없다. 유예기간을 두어서 현장을 점검한 후 시행을 해야 한다.
- 변해동: 우리가 먹는 오이는 아침에 약을 치고 오후에 따나. 이렇게 생산되는 신선야채를 우선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
- 박현근: 농민이 생산농산물에 병이 갔을 때 기술센터에서 처방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다. 했을 경우 여러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유기농 하는 농업은 걱정이 없다. 그런데 생산하는 농산물의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유기농의 상품이 아니라 보기 좋은 농산물이 상품이다.
- 이진수: PLS가 시행이 되어 많은 혼란이 있는데 이에 앞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말은 유기농을 원하지만 보기 좋은 농산물을 찾는 것이 소비자들의 심리이다
- 유명조: 10년 전부터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되어왔다. 이번 PLS의 실행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 농산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 최무열: 시행도 좋지만 가장 문제는 소비자들의 인식이라 생각한다. 농약을 쳐서 예쁜 것이 농약을 안친 농산물보다 가격이 좋은 것이 현실이다.

## ○ 기타 농업·농촌 현장여론

- 송주희: 청년농업인으로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주위에서 조수익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 농사는 순수익이 얼마 되지를 않는다. 조수익만 보고 잘된다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데 현실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 송인숙: 농가를 하나로 보고 조수익을 보면 많다. 그런 게 두부부가 일을 하면 둘로 나누어 소득을 계산을 해야 한다. 부모님이 같이 있을 경우 4으로 소득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면 일익이 조수익은 이천오백만으로 경비 빼고 나면 소득이 거의 없다.
- 이진수: 백화점 납품을 하는데 납품한 일익이 전부 순수익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세를 125만원을 냈다. 경비를 제하면 세금이 적어진다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제 농가의 납품하는 곳이 많으니 세무 관리 좀 해주었으면 한다.
- 변해동: 조수익이 농민의 순수익으로 계산이 되어서 농촌이 부풀어진 부분이 많다.
- 유영조: 농촌을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농민들의 가계부 교육이 필요하다.
- 심호섭: 나도 조수익은 익이 넘지만 순수익은 1천~2천 정도 될 것 같다.
- 최락철: 청년농부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나도 청년이고 농사를 짓는데 힘든 점을 나누고 싶다.
- 이윤희: 농업인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제가 농민들에게 타격이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는 반면 현장의 농민들은 안 되고 있다.
- 송인숙: 쌀은 소득보전직불금이 있듯이 농산물에 대해 최저농산물가격보장이 필요하다. 가격이 좋으면 다 같이 심어서 폭락을 하고 가격이 안 좋으면 안심어서 비싸지고 있다. 공산품은 수급조절이 가능하지만 농산물은 가격을 변동 치게 하는 많은 요인이 있다. 그래서 힘들지만 최저농산물 가격보장이 되면 변동의 폭이 적어 질 것 같다.
- 이진수: 처음 관광농원이 시작 되었을 때 6명의 법인으로 보조를 받아서 만들어졌다. 이곳에 혈세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되어 있다.
- 박현근: 이제 농민의 물건이 담보가 되어 있으면 보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 실제로 7억의 토지에 1억 5천의 건물을 지원 받았는데 담보대출이 안 되어 어려웠는데 이럴 때는 1억 5천

을 제한 금액의 대출이 되어야 한다.

- 심호섭: 유일하게 흑자인 축제가 산천어축제이다. 와서 보니 사람이 많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축제는 사람이 없다. 지방혈세를 축내는 축제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한다.
- 변해동: 이제 우리도 실익을 생각해 봐야 한다. 신금영 회원님 말씀대로 대농으로 돈을 벌어서 외국인임금 주고 기름 값 주고 남는 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가족농 중심으로 우리의 농업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 박현근: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올 때 농지구입자금이 현실화 되었으면 한다. 지금 평당 35000원 하는 농지는 전국에 없다. 조금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농촌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 ○ 기타 건의사항

- 박정숙: 농경연에서 오늘 참석해주시긴 했지만 오후에 하는 간담회에는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 다음에는 1박 일정으로 함께 해 바뀐 정책이라든지 농업정책에 대한 많은 정보 교환과 토의가 되었으면 한다.

### ○ 추후 강원지회 간담회 일정 수립

- 다음 2분기 회의는 강원 원주에서 6월 초에 진행하며, 3분기 회의는 9월중에 인제에서 개최하기로 정하였다.

